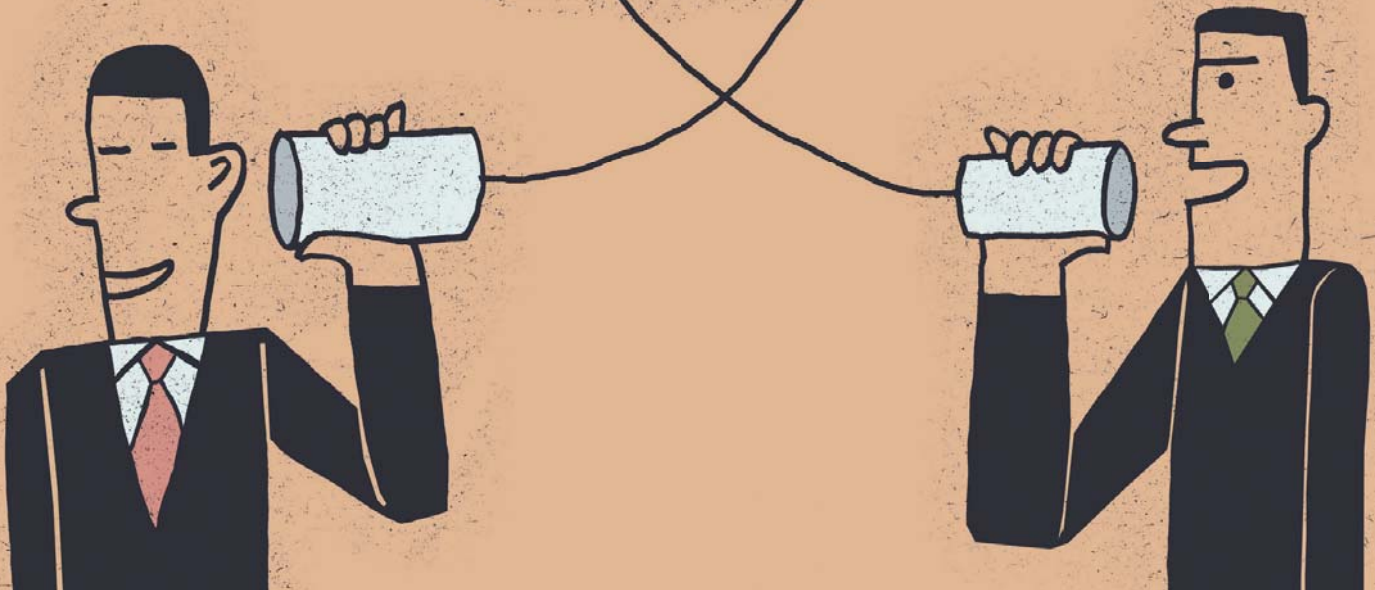


한국인의 거짓말 문화를 바꾸는 기독교세계관



강진구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교수이며 영화평론가이다. SFC문화연구소장,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운영위원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중강연과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문화사역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토끼전〉에 나타난 한국인의 거짓말에 대한 의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산다. 그것도 하루 평균 200번 이상. 당신이 가까운 친구와 10분간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에도 적어도 두 번 이상 거짓말을 한다는 전문가들의 근거 있는 주장도 있다. 심리학자이자 칼럼니스트인 클라우디아 마이어(Claudia Meyer)는 그녀의 책 〈거짓말의 딜레마, *Dilemma of Lie*〉에서 “거짓말은 삶과 존재의 일부이며, 진화의 원동력이자 생존 전략이며, 일종의 사회적 윤활제다.”라고 주장하며

거짓말이 세상을 결속시키는 힘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거짓말이 지닌 나름대로의 사회적 역할을 긍정적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려서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동화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에게서 벌어지는 일이라서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그렇다면 거짓말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적인 것일까? 아니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개인적인 것일까? 이 물음의 진실은 거짓말을 이해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 즉 거짓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각에 달려 있다. 거짓말이 인간의 잘못된 죄악으로 여겨지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 지혜로운 인간의 행동으로 판단되는 문화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거짓말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자료는 ‘구토설화(龜兔說話)’에 실려 있다. 흔히 〈토끼전〉 혹은 〈별주부전〉으로 불리우는 이 설화는 삼국사기 김유신열전(金庾信列傳) 등을 통해 전해 내려오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판소리와 소설의 형태로 자리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민화나 설화와 같은 구두 전승 문화는 그 문화를 수용해 온 집단의 무의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인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토끼전〉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을 구하러 물으로 가는 자라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이 설화에는 거짓말의 긍정성이 내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은 어느 사회에서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간주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은



그림 1. 토끼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요긴한 도구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자라는 용왕에게 대단히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용왕을 위해서라면 거짓말 따위는 문제 삼지 않는다.

자라가 또 말하기를,

“그대는 생각하여 나를 따라 용궁에 들어가면 선경(仙境)도 구경하고 천도(天桃)라도 얻어 먹고 천일주를 장취(長醉)하며 미인을 희롱하여 평생을 환락할 것이요, 또한 부귀를 모두 갖출 것이니 재삼 생각하게나.”¹⁾

별주부가 물에 나와 토끼를 만나 그를 설득하는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지금 별주부는 토끼의 환심을 사기위해 사실을 왜곡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환락과 부귀를 장담하고 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사기(詐欺) 및 살해음모의 수준이다.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라고 한다면, 비록 별주부가 직접적인 재산의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해도 토끼의 죽음을 대가로 토끼의 간을 용왕에게 바쳤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반대급부가 꽤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죄 및 살인음모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토끼가 어리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설화가 회자되고 판소리로 대중들에게 사랑받았던 당시, 유교사회의 중요한 덕목이 충(忠)이란 사실에서 자라의 거짓말 자체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나중에 토끼에게 속은 어리석음이 문제라면 문제일 뿐이다.

한편 토끼는 처음에는 속았지만 거짓말로 용왕을 꾀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로운 자로 아울러 인식되고 있다.

(용왕에게 아뢰기를) “세상 사람이 소생을 만나면 약에 쓰려고 간을 달라 하기에 소생이 이루어 입막음을 할 길이 없어 간을 내어 깊은 곳에 감추어 두고 다녔던바 마침 별주부를 만나 이렇게 될 줄 모르고 그저 들어왔습니다.”²⁾

토끼는 용왕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토생전에서는 이것을 거짓말이라 하지 않고 ‘꾀’라 말한다. 이것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거짓말이 오랜 세월 동안 꾀 있는 사람의 특성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친숙한 ‘봉이 김선달’ 이야기 역시 거짓말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대동강 물을 마치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자신의



그림 2. 별주부전

소유물인 양 한양의 상인들을 속이고 있지 아니한가! <토끼전>의 결말은 판본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토끼에게 속은 자라가 머리를 바위에 부딪혀 죽거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기도 하지만 어떤 판본에는 자라의 정성에 감동한 도사가 용왕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주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도 한다. 그러나 <토끼전>이든 <봉이 김선달>이든 우리는 거짓말하는 주인공으로부터 풍자와 해학이 제공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 물론 거짓말이 통용되는 설화를 들으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힘없고 가난한 민초들이다. 이 때문에 한국구비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토끼전>을 백성(토끼)을 괴롭히는 몰락해가는 조선 왕조(용왕)의 부조리한 현실을 풍자하고 고발한 것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봉이 김선달의 경우도 당시의 세도가(勢道家)나 사대부들이 거짓말의 주요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한국인에게 거짓말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생존법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과 〈하멜 표류기〉에 나타난 거짓말

〈토끼전〉과는 달리 서구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이솝(Aesop)의 〈늑대와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이 주는 폐해를 고발함으로써 정직의 유용성을 가르치고 있다. 계속된 거짓말의 결과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양들을 모두 잃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미 고대 그리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서구의 거짓말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기독교시대를 맞이하면서 한층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초기 기독교 교리와 사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 교부이자 주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타인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도 인류의 원죄이자 근본악이다.”라고 비난한 적이 있다. 이것은 굳이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는 사소한 거짓말조차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흔히 배려나 덕담 차원에서, 혹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백색 거짓말(White Lie)’도 하나님의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독교 문화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른 것 못지않게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저지를 수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 혹독한 비난을 서슴치 않는다. 한 번의 실수로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의도된 두 번째 잘못이라 여길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상호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자. 만일 그 양치기 소년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심심해서 한 거짓말이 들통 나지 않도록 또 다른 거짓말로 둘러대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이왕 한 거짓말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기보다는 혹시라도 마을사람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토끼전〉과 〈봉이 김선달〉의 설화에 나타난 한국인의 거짓말 습성을 근거로 삼는다면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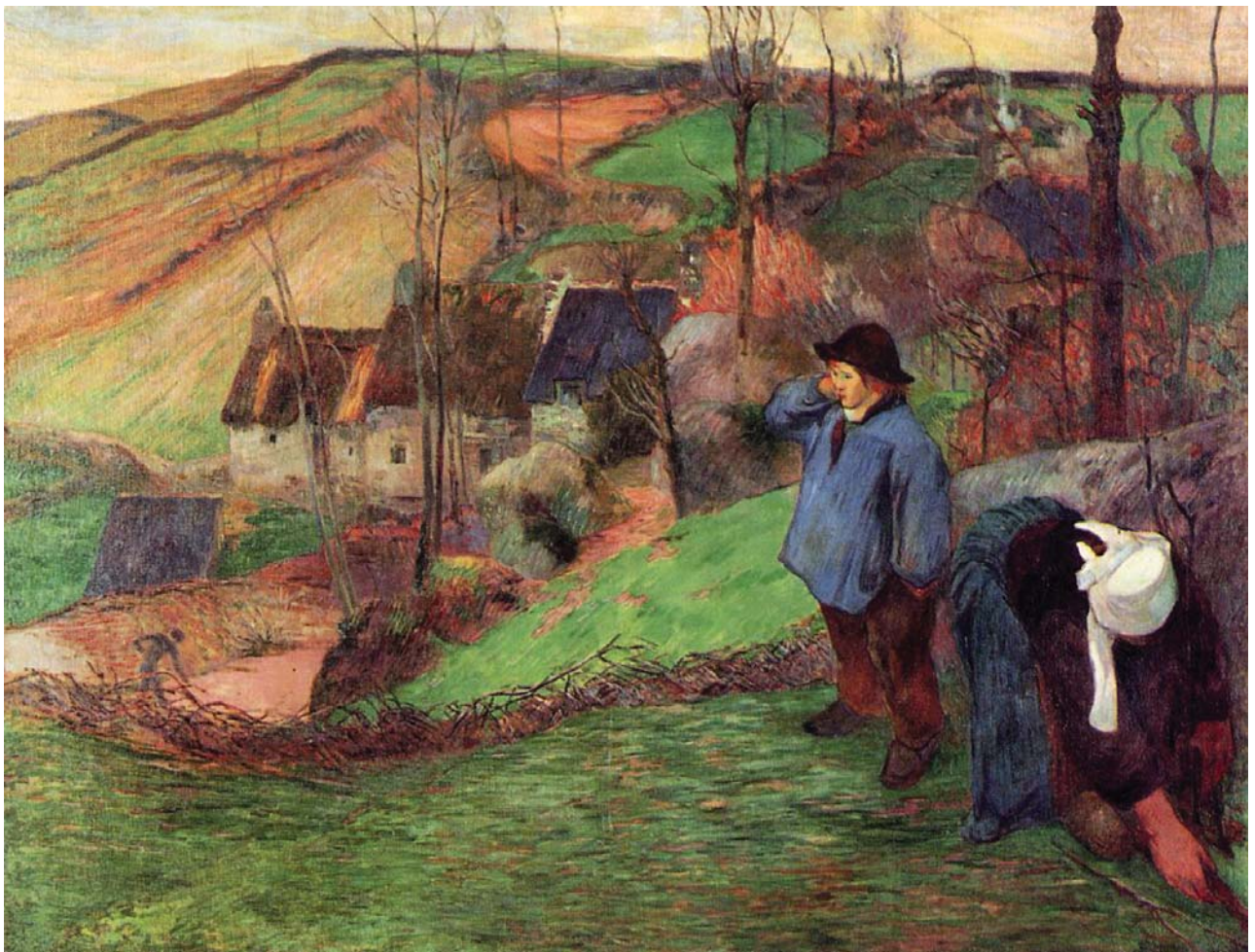


그림 3. 브르타뉴의 양치기 소년 [Landscape of Brittany] - 폴 고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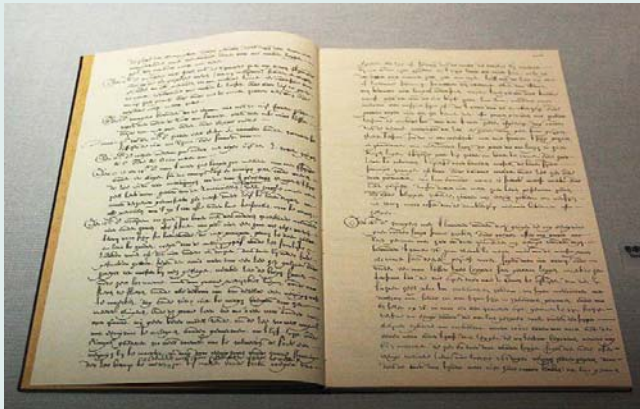


그림 4. 하멜 표류기

안타깝지만 한국인의 거짓말하는 습성은 꾸며낸 이야기 속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헌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1653년 제주도 인근 해역을 지나가다 난파한 네덜란드 선원 하멜(Hendrick Hamel)이 14년간 조선 땅 여기저기를 끌려다니며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하멜 표류기>에는 거짓말하는 한국인에 대한 묘사가 실려 있다.

“조선 사람들은 매우 도둑질을 잘하며 속이거나 거짓말도 잘한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신뢰할 수가 없다. 동시에 조선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고 쉽게 속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조선 사람들은 유약한 민족이며 강직함이나 용기가 전혀 없다.”

하멜의 눈에 한국인은 거짓말로 남을 속이기도 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속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것은 마치 <토끼전>에 나오는 자라나 토끼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서로가 속고 속이면서 사는 사회에서 거짓말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큰 허물로 인식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멜은 한국인의 거짓말 풍속을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不信) 때문임을 밝힌다. 물건을 파는 상인이 손님에게 가격을 깎을 것을 예상하여 미리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이나, 손님은 상인이 제 가격을 붙여놓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일단 가격을 낮춰 부르는 일은 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이다. 상거래는 불신의 사회에서도 속임의 법칙을 나름 인정하는 가운데 성사될 수 있지만 그것은 끊임없는 의심과 거짓말의 악순환을 불러올 뿐이다.

거짓말 습성을 바꾸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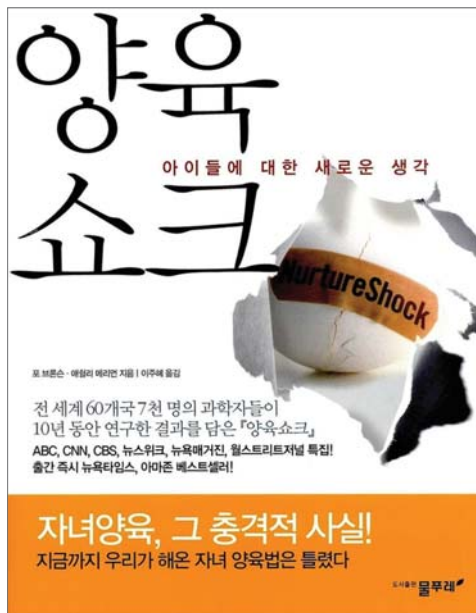
한국인의 거짓말 문화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된 것은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되고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서구 근대식 교육이 실현되면서부터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의 어린 시절 일화인 ‘체리나무 이야기’는 한국의 전통교육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정직의 의미를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물론 지금은 조지 워싱턴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지역에 체리나무가 없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누군가 위인전을 꾸밀 요량으로 만든 이야기로 알려졌지만, 한국의 근대교육에서 정직을 온 나라에 알린 일등공신임에는 틀림없다.

아동도서에서 실린 이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지 워싱턴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받은 손도끼로 그만 아버지가 아끼던 체리나무를 베어버리고 만다. 다음 날, 화가 난 아버지는 누가 체리나무를 베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자 어린 워싱턴은 용기를 내어 자신이 잘랐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아들의 정직함을 높이 산 아버지는 “조지, 내가 오늘 나무 한 그루를 잃었지만, 정직한 아들을 얻었구나. 네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나무 천 그루보다 더 소중하단다.”라고 말하며 아들을 안아주었다.

조지 워싱턴의 이 에피소드는 진위여부에 상관없이 어린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아동의 거짓말 행동에 관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캐나다 맥길대의 발달심리학 교수인 빅토리아 텔워(Victoria Talwar) 박사는 아이들의 거짓말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솝의 ‘늑대와 양치기 소년’ 그리고 ‘조지 워싱턴과 체리나무’ 이야기를 각각 아이들에게 들려줬을 때의 서로 다른 변화에 주목했다. 즉 ‘늑대와 양치기 소년’을 들은 아이들의 경우 거짓말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반면, ‘조지 워싱턴과 체리나무’ 이야기를 들려준 아이들은 남자 아이의 75%와 여자 아이의 50%가 거짓말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³⁾

그 이유는 혁신적인 자녀교육법을 소개한 책 <양육 쇼크>⁴⁾에 나타나 있다. 흔히 부모가 “거짓말 하면 혼나!”라고 자녀에게 말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반면, “네가 잘못했다고 해도 화내지 않을게. 사실을 말하면 엄마는 정말 기뻐 거야.”라고 말을 하면 아이들의 거짓말 습관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이 거짓말을 시작하는 이유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가 진정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 줄 때 아이들은 비로소 거짓말 행동을 수정한다는 것이다. ‘거짓말하면 혼난다’는 방법은 거짓말하면 늑대에게 양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거짓말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는 행동을 수정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뜻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거짓말하면 잘못된다는 부정적 언행보다는 거짓말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기독교세계관으로 거짓말 문화를 바꾸다

한국 역사에 있어서 정직의 가치는 누구보다도 도산 안창호 선생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는 기독교를 종교의 영역 안에 가두어놓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일제강점기 당시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으려 했던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민족과 사회를 개혁하려는 운동가였다. 그는 ‘정직과 성실만이 이 나라를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역설하면서 거짓말에 관한 두 가지 명언을 남겼다.

첫째는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꿈속에서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빠져리게 누워쳐라. 죽더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이고, 다른 하나는 ‘속이지 말자. 속지 말자.’이다. 이러한 사회계몽적 발언은 한국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 아니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말이라 볼 수 있다. 유교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거짓말은 입신양명을 위한 방편으로 치부되기 십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유교는 분명한 내세관이 없고 심판사상에 대한 개념 역시 미흡해서 개인의 거짓말에 대해 내세에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일은 없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내세관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거짓말을 제어하도록 만든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따라서 거짓말에 대한 이해는 그 시대를 주도하는 세계관이 무엇이나에 달려 있다. 결국 한국이 정직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독교가 기여할 일이 많다는 의미이다.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클수록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이 매번 그런 용기를 내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필요하다. 거짓말하는 삶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대상 29:17). 

* 이 글은 손봉호 이사장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빌어 쓴 것임을 밝혀둔다.

1) 인권의 역주(1993), 『토끼전』, 한국고전문학전집6, 서울: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5쪽

2) 앞의 책, 31-33쪽

3) [김학순의 세상툰아보기] 왜곡·편향 역사교과서의 파장, 내일신문 2013.09.09

4) Bronson, Po, Merryman, Ashley(2011), *Nurture Shock: New Thinking About Children*, 이주혜 역, 『양육쇼크』, 서울:물푸레